미사일 방어도 사드 대신 십자가다

(열왕기상 11:14~25)

14.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19. 하닷이 바로의 눈 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20.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21.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22.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미사일 방어도 사드 대신 십자가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미사일 방어도 사드 대신 십자가다'
우리나라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보도되면서 많은 찬반이론이 이야기되고 있고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의 도입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제1 교역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미사일 방어도 사드 대신 십자가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드를 설치하는 호불호의 논쟁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인들과 정치평론가들에게 맡겨두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드와 사드가 막으려 하는 탄도 미사일이나 핵폭탄이 갖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핵폭탄이 갖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핵폭탄의 위협이 이북을 통해서 계속 가시

화되고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는데, 이러한 핵폭탄의 영적 의미를 모른다면 핵폭탄과 관련된 신앙적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힘들 것입니다. 핵폭탄이 두려운 것은 초토화에 있습니다.

'초토화'는 사람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식품 교통체계 정보통신 산업기반 심지어 사람의 존재 자체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토화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토화로 표현될만한 상황은 인간의 전쟁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있어왔습니다. 핵폭탄은 일순간에 삶의 생존환경을 초토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 발전시킨 초토화 수단의 가장 발전 된 형태일 것입니다. 여기에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선민만이 아는 특급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특급 비밀은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창조를 결정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 세계와는 다른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공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가 마치 원자폭탄으로 초토화된 상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렘4:19~20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파멸되도다'라고 하는 말이 핵폭탄을 의식한 말씀은 아니지만 마치 핵폭탄에 의해서 망했을 때의 상황이 이러할 것입니다. 이어서 23절에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라고 하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주어질 것을 예언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말씀이 전파됨과 아울러 새로운 피조물들이 나타나며 근절되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밀려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피조물들이 존재해야 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는 공간에 울려 퍼져 들어올 때에, 말씀의 힘에 의하여 피조물이 존재하게 되고 말씀의 힘에 의하여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밀려서 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도달하지 못하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달하지 못하는 공간과 하나님의 뜻이 도달하지 못하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억눌려 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시금 쇄도하면서 덮어버리게 됩니다.

석유가 고갈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 있다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데 상징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억제되어 밀려나 있지만 얼마든지 지구 전체를 덮

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무한합니다.
히틀러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근절되자 유럽 전체가, 일본의 지도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근절되자 아시아 전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빠져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조건만 맞으면 억눌려 있던 상황에서 언제든지 쇄도해 들어와서 우리 삶을 덮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핵폭탄은 과학적으로 보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반응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지만 영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핵폭탄은 태초에 억눌려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핵반응에 의한 폭발력이 아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 그릇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핵폭탄이 인간의 삶을 초토화시켜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불러들이는 상징적인 대표 물건으로 볼 때에, 평강으로 가득했던 솔로몬 통치시대부터 위협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에돔 나라의 왕손 하닷에 대한 이야기와 이어서 짧게 아람 사람 르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돔'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위치했던 나라이고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수리아 지역의 나라였습니다.
다윗 시절에 요압 장군이 에돔에 대한 섬멸작전을 수행할 때에 모든 남자를 죽이기 위해서 육 개월 간 머물렀을 때에, 신하들이 아기였던 하닷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 왕은 이 왕손을 극진하게 후대해서 하닷이 성장했을 때에는 바로가 자기 처제를 아내로 삼게 하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닷이 다윗과 요압이 죽은 것을 알게 되자 바로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라고 만류했지만 돌아왔다는 얘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솔로몬 통치기간 동안에 어떤 해를 입힌 적도 없고 해를 입힐 수도 없었습니다. 르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람지역을 섬멸할 때에 자기 왕을 버리고 다메섹으로 도망쳐서 잔당들을 모아 지내다가 솔로몬의 관심과 주의가 허술한 틈을 타서 스스로 왕이 된 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대적의 위치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솔로몬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에 일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난 후에 이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이후에 나라가 균열되는 혼돈의 실제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솔로몬도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닷도 바로의 처제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바로가 서로 다른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락하셨다면 하

닷은 애굽의 원조를 받아서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애굽은 이스라엘의 서남쪽으로부터 공격해 들어와서 양면작전을 펼칠 수도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왕이 된 르손도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과 암몬 나라와 힘을 규합하여 솔로몬에게 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샬롬의 기간 동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근절된 것이 아닌 억눌려 있었을 뿐이었는데 마치 고혈압 환자가 혈압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약을 먹는 동안에만 혈압이 낮게 유지되고 약을 먹지 않으면 그 순간 혈압은 다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초토화되는 조건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얼마든지 혼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인데도 도대체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허는 몇 십 년간을 열심히 살았는데도 아무리 손에 쥐려고 해도 물처럼 다 새어나가고 쥐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흑암은 정확하게 말하면 깊음 위에 덮인 것입니다. 수면 위로 올라와야만 빛이 보이는데 가라앉아서 흑암이 덮여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깊은 물에 빠진 상태로 질식하면서 죽어가는 것인데 우울해하며 걱정에 짓눌려 스트레스에 정복당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개인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나라와 사회에서도 언제나 도사리고 있으면서 조건에 따라서 덮치거나 억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평강의 시절이 솔로몬의 자질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억눌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천명의 아내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자, 억눌려 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분열이라는 불행한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에서처럼 분열로 시작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진멸당하고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깡그리 망해버리는 초토화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서야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초토화의 궁극적인 지점까지 가서 끝이 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조건이었습니다. '공허'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상태입니다. '혼돈'은 질서가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흑암'은 마음이 가라앉아서 우울하고 걱정스럽고 무겁고 기쁨과 가벼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조건을 알아야만 하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떻게 억제됩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벽을 이루듯이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밀려나서 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둬지는 곳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홍해 바닷물이 애굽 군대를 휩쓸 듯이 덮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에 의해서 피조의 공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밀려났었는데, 이 공

간 안에서 인격적 존재인 인간이 자기 삶의 공간을 만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물러나서 억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버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이게 됩니다.
나무, 바다, 물고기, 고래, 상어, 개미, 거미 등의 미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인격자인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직접적일 수 없고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내가 인격자이기 때문에 나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나의 삶에 대해 계획하고 소원하며 뜻을 품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삶의 공간에서 내 뜻이 발현되고 소원과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중이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막혀버리고 그곳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내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 때처럼 흘러 들어와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고 억누를 수 있을까요? 마음에서 사실적 차원의 하나님이 현실적 차원으로 승격되셔야만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야만 합니다. 스무 살에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재료들이 쓰나미처럼 마음을 감쌀 때, 이 오감의 재료들을 다 벗겨내기 위해서 일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을 명확한 모습으로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명확하게 만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격이 훌륭하고 지혜가 출중한 어른을 만나면 그 앞에서 입을 다물고 귀를 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억누르는 조건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일천 번제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일천 번제를 생활화하면 내 삶과 내가 속한 사회나 국가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밀려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유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북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을 과학으로 발전한 사드가 막아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핵폭탄이 담고 있는 것은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태초에 억눌려 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것이 터지는 것은 일순간에 우리가 사는 공간이 물리적으로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이 초토화는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이북의 김정은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위협할지라도 우리 선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재료들에 의해서 가려지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 수만 있다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계속해서 억눌려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만들어 내는 핵폭탄 속에 들어있는 재료가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기 때문에,

전쟁의 논리나 과학의 논리나 정치의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현실로 인정해 드리고 명확하게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핵폭탄 속에 담겨있는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우리나라에서 철저하게 억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나 길을 찾고 열매를 손에 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밝음과 기쁨과 만족을 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본성상 내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하여 오감으로 들어오는 쓰나미 같은 많은 재료들을 헤치고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지켜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질서가 가득하고 밝음과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역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에 여생의 모든 시간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와 나라까지도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